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트럼프 관세와 무역전쟁 폭풍 속 급락한 주식 시장

- 주요 지수 폭락, 다우 -5.5% 하락
-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로 미·중 무역전쟁 격화
- 연준 의장 매파적 발언, 금리 동결 시사

Summary

미국 증시는 이틀 연속 급락을 기록함.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은 5.97% 하락하며 5,074.08로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5.82% 하락해 15,587.79를 기록함. 다우 존스 산업평균지수도 5.50% 떨어져 38,314.86로 마감했으며,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는 4.37% 하락해 1,827.03에 거래를 마침.

이번 급격한 지수 하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와 경기침체 우려로 인한 결과임.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당장 정책 변화를 서두르지 않을 것을 시사하며 실망감을 보임. 이러한 악재 속에서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3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22만8천 명으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긍정적 결과를 나 타내었으나 시장 붕괴를 막지 못함.

대규모 기술주들이 폭락하면서 애플은 7.29%, 엔비디아는 7.36%, 테슬라는 10.42% 각각 하락했으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7.60% 추가 하락함. 이에 따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게 상승함.

이번 증시 하락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 최악의 낙폭이며, 투자자들은 글로벌 무역전쟁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음. 이번 주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다우 -5.50%, 나스닥 -5.82%, S&P500 -5.97%, 러셀2000 -4.37%)

특징종목

애플(-7.3%)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큰 하락폭을 기록함.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34%의 보복 관세 부과 발표가 주요 원인이 되었고, 애플의 글로벌 공급망이 상당한 위험에 처함에 따라 주가 하락세가 이어짐. 알파벳(-3.4%)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광범위한 새로운 관세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과 관련해 하락함. 관세로 인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확대되면서 기술 주식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줌.

아마존(-4.2%)은 트럼프 관세 정책의 반발로 주가가 하락했으며, 그로 인해 최대 100억 달러의 이익 손실이 예상되는 불리한 상황임. Nvidia(-7.4%)도 관세 정책의 여파로 주가가 급락했으며, AI 칩 사업이 관세로 인해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마이크로소프트

트(-3.6%)는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에 외관세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했지만, AI 주도 사업으로 인해 타 대기업보다 하락폭은 덜한 편임. Meta(-5.1%)는 Llama 4 모델 발표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으로 인한 하락을 피해가지 못했으며, AI 시대에 맞춰 손실을 만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마지막으로 테슬라(-10.4%)는 월가 분석가들의 비관적 전망과 엘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했으며, 일부 시장에서 차량 매각이 증가하는 등 악재가 지속됨.

반면 Deckers Outdoor (+5.1%)는 긍정적인 기업 실적 소식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며 주가가 상승했음. 텍커스 아웃도어는 기업 실적이 개선되며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주었음. 나이키(+3.0%)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관세 부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함. 이는 시장이 관세에 따른 비용 증가를 견딜 수 있다는 믿음과, 나이키의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위치 강화가 반영된 결과임. 나이키는 관세로 인한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수 있으며 공급망을 최적화할 능력이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음. 이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주요 요인임. 나이키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의 강점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관세 위기가 장기적으로 그 영향력을 상쇄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주가 상승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됨.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는 급격한 등락이 이어지고 있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의 장 제롬 파월이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확대되고 있음.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96%로 소폭 하락하며 투자자들이 안전 자산으로 몰리는 경향을 보임. 각국의 주요 국채 수익률도 대체로 하락세를 나타내며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을 보임.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인덱스가 103.02로 상승,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의 강세가 두드러짐. 특히 USDCAD와 USDJPY가 각각 1.42, 146.87로 상승하며, 미화 강세는 명확히 나타남. 상품 시장에서는 WTI 원유가 일일 6.92% 하락한 62.32달러를 기록, 원유 가격의 급락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강화함. 다른 에너지원인 천연가스와 난방유도 각각 7.68%, 4.10% 하락함. 금속 시장에서 금 가격은 소폭 하락했으나, 은과 구리 가격은 각각 7.32%, 9.06%나 하락하여 산업용 금속 수요 둔화 우려를 반영함. 이러한 전반적인 금융 및 상품 시장의 불안정성은 현재의 경제적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들은 향후 경제 지표와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